

상록탑

대강당이라는 공간

문득, 공간을 의식하게 될 때가 있다. 전, 선, 면으로 이뤄진 공간이 피부로 느껴질 때 괜히 어색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기둥의 높이감, 서로 다른 방향의 벽들이 부딪혀 만들어 내는 에너지, 붕 떠 있는 천장으로 채단되는 공간을 찬찬히 구경한다.



우아현
사진부 부장

“ 학보사 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만큼 다양한 장소와 만나게 된다. 행사 장소에 도착해 카메라 설정값을 맞추며 주변을 살피다 보면 익숙한 공간도 그렇지 않은 공간도 낯설게 다가오곤 한다. 그 중에서 특히 ‘대강당’이라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

당신과 나의 추억이 겹겹이 쌓여

1956년 이화여대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세워진 대강당은 500명을 수용할 수 있던 중강당과 달리, 당시 이화여대 재학생 4천여 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세종문화회관이 생기기 전까지 ‘동양 최고 규모의 강당’으로 기록됐다고 한다.

“ 대강당을 찾았다. 당일 행사는 오후 3시 무렵까지 진행됐다. 창문을 통과한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와 노란한복 단정히 차려입은 선배의 얼굴 위에 맺혀있던 장면! 왜인지 그 날의 잔상이 오래도록 남아있고, 또 다른 졸업생 선배가 이화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던 본인도 그들이 공유하는 기억에 자연스럽게 빠져있는 것 같았다. 조금 과장하면 대강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시간여행을 하는 것만 같았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와- 빠져나가고 나서도 한동안 대강당에 앉아있었다.

대부분의 학생에게 대강당은 ‘이화인’으로서 학교와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지는 장소. 채플을 통해 대학이 좋은 삶든 주저적으로 만나는 곳, 학교와 공식적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공간이 아닐까. 취재를 통해 만나게 된 선배들과 채플에 늦지 않기 위해 대강당 앞의 들레단을 험레벌떡 오르던 일화로 공간대를 형성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대강당은 분명 건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개교기념일 즈음 동창의 날 행사에서도

“ 그 독특한 공간에는 개개인이 느낀 감정과 경험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의미를

차곡차곡 덧붙여가는 것 같다. 성별에 구속받지 않는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것에 대한 기대감, 대강당이 세워질 무렵 한국 전쟁 이후 교육의 장을 재정비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 외에도 60여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신입생과 졸업생들의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지금의 대강당에 녹아있는 것만 같다. 대강당에 흐르는 산뜻한 찬공기가 폐에 들어갔다 나올 때 알 수 없는 안정감과 든든함이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일까.

“ 학교에 들어와 벌써 세 번의 입학식과 세 번의 학위수여식을 지냈다. 그리고 신문이 발행될 25일 월요일에는 3509명의 졸업생이 세상에 첫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 신입생 시절 학교에 입학하며 꿈꾸던 대학 생활과는 다른 일들, 희망과 기대를 품는 것이 미련한 일로 느껴지는 무기력한 순간들이 오더라도 대강당에 모여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래도 채플을 들으러 대강당 계단 뛰어 올라가던 일상을 살아낸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듯, 대강당은 바로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의 교차로가 되어주는 것은 아닐까. 밤이나 낮이나 그 자리를 지켜주며 많은 신입생과 졸업생, 재학생들을 품어주는 대강당이 언제까지나 그곳에 있어 주기를 바란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랑하는 대강당이 항상 그곳에 있어 줬으면 한다.

학생 칼럼

혼자여도 괜찮아

어느덧 미국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지 두 달이 되어간다. 설렘 가득한 채 시작했던 교환학생 생활을 돌이켜 보면 소중한 추억들이 많이 생각난다. 그러나 이런 것들 외에 내가 교환학생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외국 생활을 하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외로움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다.



김수진
사교16

“ 나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 단 한 번도 가족과 떨어져 혼자 타지에서 지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외국에 머무는 동안 사무치는 외로움에 허우적덕고 이에 외로움을 타파하고자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그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매일 할 수는 없는 것이었기에 나는 이따금 일상을 혼자 기숙사에서 보낸 적이 많았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해왔기에 그저 혼자 침대에 누워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고 있는 내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

“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찾다 ”

로써 그동안 인간관계에 얽매어 스트레스 받았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며 내가 미래에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에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는 시간도 한편으로는 영어를 공부하는 데에 가치 있게 이용할 수 있었고, 침대에 누워 가만히 있던 시간조차도 지금껏 쉬지 않고 달려왔던 내 인생에 꿀 같은 휴식을 선사했다.

“ 앞서 말했듯이 나는 대인관계 속에서의 나를 중시하여 내가 혼자 있었던 시간을 홀대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혼자 있었던 시간을 통해 나는 예상외로 얻은 것들이 많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고도 혼자 있는 나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 만약 시간을 거슬러 외로움에 몸부림쳤던 그때의 나에게 한마디 말을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이 말을 해주고 싶다. “혼자여도 괜찮아.”

앞서 말했듯이 나는 대인관계 속에서의 나를 중시하여 내가 혼자 있었던 시간을 홀대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혼자 있었던 시간을 통해 나는 예상외로 얻은 것들이 많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고도 혼자 있는 나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 만약 시간을 거슬러 외로움에 몸부림쳤던 그때의 나에게 한마디 말을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이 말을 해주고 싶다. “혼자여도 괜찮아.”

여론광장

사회가 원하는 인재?

우리는 오늘도 세상이 원하는 인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번 겨울 방학은 세상이 원하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하여 영어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마도 3학년 여름방학엔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해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을 내 모습이 그려진다. 요즘에는 많은 고민에 매일 밤 편히 잠자리에 들지 못한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사회가 원하는 인재가 되려고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것인지. 이 노력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언가를 얻었을 때 과연 나는 당당히 행복을 정의할 수 있을지.

사회는 청춘에게 많은 것들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한다. 상위 1%의 학벌, 높은 학점, 능숙한 외국어 실력, 그리고 그 외 언젠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다재다능한 능력들. 게다가 원활한 단체 생활을 위한 유쾌한 성

격과 상대방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준수한 외모까지 요구한다. 청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이들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취업 시장에서 실패자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 결승점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달리기를 하는 중이다.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있던 중 친한 선배가 나에게 하나의 조언을 해주었다. 사회의 기준, 주변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스스로가 세운 기준이라는 말. 그 말을 들은 뒤 나의 지난 2년간의 대학 생활을 돌아보니 고등학교 시절 내가 생각했던 대학생이 된 나의 모습과 아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주체적으로 찾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사회가 정해놓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내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주체적인 대학생의 모습을 기대하였을 고등학생의 나에게 미안함이 느껴졌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 자신부터 돌아보려고 한다. 대외활동, 여학 공부. 이 모든 것들이 내 행복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것들이라면 당연히 필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과연 이 활동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인생은 각자 써 내려가야 한다. 그 누구도 인생을 대신 써줄 수 없기에 우리는 각자만의 확고한 기준을 갖고 우리의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에 나는 정진없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를 잠시 멈추고 이야기의 전개 방향을 고민해보기로 하였다.

세상에 완벽히 일치하는 이야기는 없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잠시의 배정 탐색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번쯤은 다들 달리기를 멈추고, 나만의 멋진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조금 쉬어보는 것은 어떨까? 현지인(사회17)

from 편집국

안녕하세요. 새로워진 이대학보입니다

“이대학보는 학내 대표언론이지만, 학내 인기언론은 아니다.”

아마 학보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말일 겁니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내 대표 언론역할을 하는 건 이대학보가 아니라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1호부터 1572호까지, 도대체 그 많은 이대학보의 역사는 어디로 간 걸까요? 선배 기자부터 현 기자들이 새운 밤들은 헛된 것이 아니었을 텐데요. 학생들이 정문에 놓인 배포대를 투명한 시선으로 지나갈 때마다 씹쓸하게 곱씹는 질문입니다. 현재 이대학보는 매주 약 8000부를 찍지만 절반이 채 못 나가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나 축제 기간이면 신문이 유독 많이 나간다는데, 증가한 학보 수요가 우산과 돛자리 수요를 대신한다는 건 알만 합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셨나요. 한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기에 이대학보는 변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읽히기 위해서는 무관심에 좌절할 게 아니라 심기 일전하고 새로운 이대학보를 준비해야죠. 이대학보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이대학보 기자들은 지난 방학 같이 머리를 싸매며 생각하고, 얘기하고, 고민했습니다. 학기 중부터 손잡아 기다리던 여행 계획과 휴식을 일부 반납한 채 말합니다. 지난한 논의 끝에 결정하게 된 이대학보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학기부터 이대학보는 취재 조직을 개편합니다. 부서 단위로 취재하던 기존의 시스템을 탈피해 팀 단위로 취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대학보는 수업팀, 안전팀, 학생생활팀, 커리어 취업팀, 자치

행정팀, 학술팀, 인물팀, 권리팀, 문화예술팀, 이렇게 총 9팀으로 움직입니다. 기존의 사회문화부, 대학취재부만으로는 소화하지 못했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및 학내 이슈를 각 팀에서 영역별로 전담해, 학내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첨언하자면, 이렇게 부서를 해체하고 팀 단위로 취재하는 건 아마 대학 언론 내에서 최초의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 사실 또한 편집국 편지 ‘From 편집국’으로 대체합니다. 유튜브 채널도 새롭게 개설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학생기가 아닌, 기자와 독자가 서로 소통하며 하나의 신문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From 편집국’은 독자와 편집국 기자들이 때로는 동지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수다 떨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을 깊게 고민하고 이화 독자들을 위해 활용하는 따뜻한 언론으로서의 사명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셋째, 이대학보 학생 패널을 조직합니다. 다양한 전공, 학년의 학생 약 100명으로 구성된 학생 패널은 이화인들을 대표해 저희와 매주 소통할 것입니다.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가 진행되며, 패널에 속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상품과 이대학보 행사 우선 참여권이 주어집니다. 패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이대학보에 관심 있는 이화인이라면 참여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대학보에서는 이외에 많은 변화가 꾸준히 진행될 것입니다. 신문을 보고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을, 기사가 없으면 제보를 해주세요. 이대학보는 언제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질책 기다리며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금주의 책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50가지 생각 도구
-야마구치 슈 지음, 파주: 다산초당: 다산북스, 2019
이 책은 철학적 사고와 일상적인 삶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철학 입문서이자 자기계발서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철학이 현실과 동떨어진 어렵고 지루한 학문이라는 편견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써 철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철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매사에 깊게 생각하고 느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은 아웃소싱 할 수 없다!'라는 저자의 말은 이 책의 주제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기는 무언가가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일이 끝나는 시기라는 책속 구절로 이 책의 소개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힘찬 시작을 도서관이 응원합니다!
-중앙도서관-
서고위치: 중앙도서관 2층출금주의 책 / 4층 일반자료실 102 산17미